

0.1초의 승부사 '외환딜러'

KEB하나은행 외환딜러 신상섭

“1달러는 1100원, 100엔은 1010원.”

이처럼 환율은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꿨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환율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세계의 여러 나라와의 무역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돈이 다른데 어떻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달러를 사용합니다. 외환거래시장의 환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어 무역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발행되는 화폐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환율이 어떤 상황에서 변화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살펴봅시다.

수요>공급→화폐가치 상승

:해당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간다

수요<공급→화폐가치 하락

:해당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다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어제는 1달러가 1100원이었지만, 오늘은 1200원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어제는 1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하는데 1100원을 썼지만,

오늘은 1200원에 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총 100원의 손해를 보겠죠? 적은 돈 같지만 거래량이 큰 무역에서는 이 100원 차이가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제 1100원이었던 1달러가 오늘 1200원으로 될 것을 미리 예상했다면? 어제 미리 물품을 구매해 국가간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겠죠?

이렇듯 환율을 예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제 화폐를 거래하는 외환딜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환딜러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외환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 외환딜러가 하는 일은? 국제 화폐를 사고파는 금융전문가

외환 딜러란?

외환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국제 화폐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금융전문가

외환 딜러란 외환시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국제 화폐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금융전문가입니다. 즉, 외환시장에서 국제 화폐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 해당 화폐를 사거나 갖고 있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국제 화폐를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지요. 외환딜러가 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우 바쁜 일과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음의 일과표를 살펴볼까요?

※ 외환딜러의 하루 일과표

오전 6시	기상과 동시에 지난밤 세계 외환시장의 추이 확인
오전 8시	회의
오전 9시	외환 거래 시작
오후 3시 30분	거래 마감
오후 4시~ 오후6시	투자자와의 외환거래
오후 6시	하루 거래에 대한 평가회의
오후 6시~	퇴근 후에도 외환시장 주시, 일부 직원은 교대로 야간 근무

아침 6시, 기상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있는 뉴욕은 한국보다 14시간이 느리답니다. 한국의 외환거래시장이 문을 닫은 뒤에 뉴욕에서는 외환거래가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환딜러는 아침에 일어나 지난밤 세계 외환시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지요.

오전 8시에는 외환 거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전 9시, 외환 거래 시장이 열리면 본격적인 외환 거래를 시작합니다. 오후 3시 30분, 외환 거래 시장이 마감됩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6시 이후에도 일을 합니다. 일을 마친 뒤에는 오늘 하루 동안 거래한 내용에 대해 평가회의를 진행합니다. 외환딜러는 퇴근 후에도 외환시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일부 직원은 교대로 야간 근무를 하며 끊임없이 외환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하지요.

외환딜러는 일과시간에 외환거래만 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

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뉴스를 보며 국내외 상황을 파악해 환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 외환딜러에게 필요한 자질은?

논리적 분석능력과 빠른 판단 능력, 평정심이 필수!

세계금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업무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

외환 거래 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대책을 찾으려는 평정심이 필요!

“외환시장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바뀔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환 거래 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의도치 않게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신상섭 외환딜러)

외환시장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환딜러는 외환시장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바뀔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재난, 테러, 국가간 협정 체결 등의 사건이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은 예측했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외환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분석·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겠지요.

분석과 예측능력만 갖춘다면 완벽한 외환딜러가 될 수 있을까요? 평정

심은 외환딜러가 갖춰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외환거래는 최소 100만 달러 단위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약 10억 원 정도의 큰 금액이지요. 외환거래 중에 실수를 해 손해를 입는다면 매우 놀라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평정심을 잃으면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했을 때는 빠르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평정심을 되찾아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 **외환딜러가 되려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

상경계열 전공 → 은행입사 → 외환딜러 연수 프로그램 이수

외환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등 대학에서 상경계열 학과를 전공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필수 자격증은 없지만, 공인재무분석사(CFA)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면 외환딜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외환딜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는 금융시장 전반에 관심을 갖는 자세입니다. 은행에 입사를 하는 것이 외환딜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평소 주식 시장, 외환 시장 등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노력을 한다면 은행 입사에 도움이 되겠지요? 입사한 후에도 꾸준히 금융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지속한다면, 내부 공고를 통해 외환딜러를 선발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외환딜러,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작은 뉴스에도 집중! 치밀한 분석력으로 환율 변화를 예측하라!**

‘0.1초의 승부사’ 외환딜러는 거대한 세계 경제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0.1초에 적게는 10억 원 가량을 거래하는 직업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 석유가격 급등, 테러와 같은 국가 재난 등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은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외환딜러는 매일 작은 뉴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냉철하고 치밀한 분석력으로 환율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금융 시장의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일과 국가간의 외화 거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슈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평소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미래의 외환딜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